

Biography

다니엘 박(한국이름 : 박철홍)형제님은 1959년 11월 3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. 형제님의 아버지께서 한국전쟁 휴전이후 세우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. 형제님의 아버지께서 가족 중에 처음으로 주님을 믿으셨고 형제님이 11살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. 아버지의 신앙이 형제님이 주님을 추구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.

형제님은 1981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는데 대학에 다닐때 8개월동안 세명의 친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. 당시 형제님은 이미 구원받았지만, 이 사건들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. 1985년에 아내인 폴린 박(한국이름 : 조현주) 자매님을 만났고 부부가 주님께 그들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. 그 후, 달라스 신학교(Dallas Theological Seminary)에 진학하여 신학을 전공하고 1994년에 졸업하였습니다. 학업 중일 때 그리고 부목사로 섬기는 동안 많은 믿는 이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복원 운동(Restoration Movement)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. 형제님 부부는 성경에 근거한 교회를 세우거나 찾기를 꿈꾸었습니다. 온 가족이 바울이 서신서에서 기록한 교회를 찾기 위해 20여 번 이상 이사를 다녔습니다. 사역자로, 목사로 또 선교사로 섬기면서 여러 단체에 있는 동료 믿는 이들을 만났습니다.

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을때 20년간의 목사직을 내려놓고 한 형제가 되었고 아틀란타에서 교회생활을 시작하여 돌아가시기 전까지 플레이노 교회에서 교회생활 하였습니다. 2020년 8월 10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형제님은 근면하고 신실한 믿는이로, 또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으로 살았습니다. 그의 생애 마지막 한 달동안 Covid-19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식이 있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.

In Loving Memory



다니엘 박 (박철홍)

November 3, 1959—August 10, 2020

시작하는 기도

찬송 1

가족 간증

간증

찬송 2

맺는 말씀

마치는 기도

Hymn 1

이전에 주를 멀리 떠나 흑암에 있었네
지금은 그 말씀 빛 가운데 주 안에 있네

(후렴) 주 내 맘 속에 살아 계시네
오 어떤 구원인가 주 내 안에 사네

햇빛이 땅에 쏟아지듯 꽃이 만발하듯
주 예수로부터 퍼져 나온 생명과 사랑

하나님 영광 나타내려 한 알의 밀알로
이 땅에 떨어져 죽은 주님 다시 사셨네

내 소망 이제 주의 형상 닮는 것 뿐일세
나 항상 죽음에 넘기우며 주 나타내리

Hymn 2

내 모든 것 주 예수께 아낌없이 드리네
영영 주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살겠네

(후렴)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
은혜로운 나의 주께 모두 드리네

내 모든 것 주 예수께 아낌없이 드리네
주 발 앞에 엎드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

내 모든 것 주 예수께 아낌없이 드리네
온전히 날 얻으소서 주의 소유 되도록

내 모든 것 주 예수께 아낌없이 드리네
주의 생명 나타나게 주의 은혜 주소서

내 모든 것 주 예수께 아낌없이 드리네
거룩한 불 날 태우니 주께 영광 돌리네

Scriptures

이사야서 55:9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
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.

욥기 1:21 말하였다. “벌거벗은 채 모태에서 나왔으니 벌거벗은
채 그리로 돌아가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
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

로마서 8: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, 곧 그분의 목
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
진다는 것을 압니다.

히브리서 12:1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
싸고 있으니,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엮어매는 죄를 떨
쳐 버리고,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.

빌립보서 1:20-21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, 어떤 일에서도 부
끄러움을 당하지 않고,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
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. 왜
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,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
이기 때문입니다.

시편 90:12 그러니 저희의 날수 세는 법을 가르치시어 저희가 지
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